

## 〈사도 바울의 한가지 소망〉

###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

8/20(주일) 설교 내용

사도행전 19:21-34

1.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,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전달되었던 모습을 보거나 경험하셨다면 함께 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.

질문 그대로, 한 사람 혹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덕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단, 1번 질문은 2번 질문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와의 같은 질문이니, 너무 긴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.

2. 에베소 지역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. 도시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이 어떻게, 무엇으로 인해 가능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(밑줄 부분 참고)

바울이 말씀으로 훈련시킨 사람은 열두명에 불과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되자 에베소 지역 전체를 뒤흔든 소동이 일어납니다.(목자님들께서 목장교재 밑줄 부분의 아데미 신상 관련 내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)

결국, 하나의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오직 헌신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이 없어도, 말씀으로 훈련되고 온전히 헌신된 소수의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.

3. 고통이 주는 ‘깊이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고통이 주는 ‘의미’라고 했습니다. 고난이 도리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목사님께서 설교중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.

맹장수술을 막 끝낸 집사님에게 맹장수술과 아이 출산 중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 물었습니다. 그 집사님은 “맹장수술이 더 고통스럽습니다. 왜냐하면, 맹장수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이지만, 출산은 이 고통 너머에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<의미>가 있기 때문입니다”

고통이 주는 아픔의 깊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, 그 고통이 나에게 주는 <의미>인 것입니다.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지만,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제각각입니다. 목원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4.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, 또 그것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
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, 가슴에 오래 남는 말씀이 무엇인지, 그리고 이 목장예배가 끝나고 ‘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’고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은 무엇인지도 나누도록 해주세요.

사실, 목장교재의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‘결단과 다짐’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 마지막 결단과 다짐이 소홀히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.